

## PA-10

## 논콩 전문생산단지 특성 및 수량성 비교

한원영<sup>1\*</sup>, 박재성<sup>1</sup>, 서진희<sup>1</sup>, 서은지<sup>1</sup>, 원옥재<sup>1</sup>, 송득영<sup>1</sup>

<sup>1</sup>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

<sup>1</sup>Department of Southern Area Crop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Miryang, 50424, Republic of Korea

## [서론]

최근 정부에서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콩) 육성사업으로 2019년부터 선정하여 논콩의 재배면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영체는 농가단위 조직보다 상위인 영농조합 등이며, 논콩 전문 생산단지이며 2020년 44개소, 2021년 38개소로 82개소가 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에 선정되면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1내지 3년 동안 받게 되며, 교육과 컨설팅 우수 단지는 파종기와 콤바인 등 농기계와 사무실 등의 시설 지원을 받고, 평가결과 우수한 단지는 사업다각화 지원으로 배수개선, 정선과 선별 시설 및 가공시설 구축 자금을 받게 된다. 논에 콩이 재배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벼보다 소득이 높아야 하므로, 논콩 전문생산단지의 조직특성, 생산기반 및 수량성 차이를 조사하여 생산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2021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82개소를 대상으로 콩 재배면적, 회원수 및 수량성을 조사한 보고서 자료를 분석하고, 수량성 300kg/10a를 기준으로 상·하위를 구분하고 대표단지를 대상으로 전화 및 면담으로 조사하였다.

## [결과 및 고찰]

논콩 전문생산단지는 전북이 51개소, 전남 18, 충남 7 등이며, 82개소 평균 수량(kg/10a) 282이고, 전국평균 203보다 39% 높았다. 도별 평균 수량(kg/10a)은 전북 289, 전남 265, 충남 254 순이었다. 수량 300kg/10a 이상인 단지가 55%였고, 주 재배 품종으로 선풍과 대찬이 77% 였다. 논에서 배수불량에 의한 피해는 24% 단지에서 나타났으며, 배수불량에 의한 수량 감소는 20% 정도 였다. 생산단지 고유의 재배 매뉴얼은 평균 52%가 가지고 있었으며, 수량성 상위단지는 77%, 하위단지는 27%만 구비하였다. 수량성 증·감과 관련하여 상·하위 생산단지는 관배수 기반을 1순위로 하였고, 2순위로 상위단지는 공동 재배매뉴얼, 하위단지는 기상재해 대응으로 차이를 보였다. 작부체계별 수량성에서 상위단지는 콩 단작이, 하위단지는 콩 단작 및 보리-콩 작부체계가 많았다.

## [사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사업(SA0001777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hanwy@korea.kr Tel. +82-55-350-1267